

디지털 기반 맞춤형교육 시스템 도입

전북자치도교육청, 충남교육청과 '온시스템' 도입 협약... 기초학력보장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충남교육청과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채움·온한글·온생각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온(On) 시스템은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출발선이 평등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교육 시스템이다.

먼저 '온채움'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에 대한 인지·정서·행동 원인과 학습 수준을 진단해 정서·행동의 안정적 발달과 기초학력 향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온한글'은 한글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한글 해득이 느린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온생각'은 교과 수업에 필요한 언어능력(의사소통)과 문해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 기반의 사고도구를 익히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다.

특히 온시스템은 경제선 지능 전수 조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별도의 진단검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로 기초학력 진단부터 이력 관리, 한글 해득, 경제선 지능 검사까지 체계적 프로그램을 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충남교육청과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용할 수 있게 돼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온시스템"은 디

지탈 기반의 맞춤형 진단 분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지원하는데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신장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청소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테니스장 신축공사 논란

군산청소소년자치배움터인 '자몽' 테니스장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청소소년자치배움터 자몽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전북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청소소년 자치공간 교육청 갑질에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박정희 전북자치도교육위원의 만남 이후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테니스장 신축으로 변경됐다는 것.

대책위는 "2023년 6월 남중 이전 관련한 주민공청회에서 자몽에 마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트랙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자몽 마을 교사회와 청소소년들은 운동장 개선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희 도교육위원이 자몽을 찾아 자몽과 지역주민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나섰다"고 했다.

이후 "8월 군산 교육장이 야외무대 및 트랙이 설치된 배치도를 자몽 과견 교사에게 보여주며, 이미 야외무대 설치 확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9월 김광규 교육장 취임 이후 운동장 개선 방안과 관련해 어떤

자몽지킴이 공동대책위 '생태공원 조성 계획서 변경'

전북교육청 "지역주민 의견 나누는 과정... 관여할 일 아냐"



군산청소소년자치배움터 자몽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전북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청소소년 자치공간 교육청 갑질에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도 공유된 것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3월 26일 박정희 도교육위원과 시설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자몽 운동장 현장실사를 다녀갔다고 했다.

이후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추진해야 하니 추경 예산안 편성안을 올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은 남중화



군산청소소년자치배움터 '자몽' (사진=자몽지킴이 공동대책위 제공)

교 이전010신설 과정에서 이미 지역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주민 운동공간 마련을 위한 자몽 내 인조잔디, 트랙, 풋살장 설치, 자몽 학생공간 마련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에 교육지원청이 해법을 제시한 후 자몽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

이어 군산테니스협회에서 교육지원청에 자몽 내 테니스코트 3면 및 조명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과 박정희 도교육위원의 면담이후 테니스장 신축으로 변경됐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교육감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일 뿐, 자몽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서포터즈 발대식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일 학내 PBL 강의실에서 제5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5기 서포터즈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홍보 및 사업의 중요성을 교내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따르면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 채널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평소 다양한 활동과 진로·취업탐색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들 중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4명을 임명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덕현 센터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서포터즈를 통해 학생 및 지역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스토리텔링 기반 해상사고 탈출 체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원장 박영석)은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학생들이 해상사고 탈출을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양안전체험관에서 해상사고를 가정한 4D영상을 시작으로 탈출과 구명정 탑승 등을 모의 체험한다.

이후 수상안전체험관에서 실제 수영복을 착용하고 해상사고 시 탈출법과 생존수영을 배운다.

끝으로 실제 바다에 설치된 계류장에 나가 탈출과 바다 생존수영, 구명정 탑승 등 실전 체험한다.

특히 모든 체험과정에서 인성교육 요소를 추가, 1박2일 과정과 2박3일 과정에서는 인성한마당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체험은 1박2일과 2박3일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해양실전체험은 5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든 체험에 참여할 수 없는 학교들을 위해 1일 과정을 9월 11일부터 운영해 17개 학교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83개 학교 5,50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할 예정이다. 날씨를 고려해 11월과 12월에는 1일과정을 운영하는데, 31개 학교 1,600여명의 학생들이 이미 신청을 마쳤다. /장은성 기자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희망학교 모집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26일까지 신청접수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오는 26일까지 찾아가는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친숙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이해와 통찰 제고를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 양성평등 교육을 희망하는 16개 초·중·고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당 학생 30명 이내로 약 2시간씩 2회차

교육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성인기 역할을 함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jwfa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063-254-947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전주대 이경재 경영대학 학장, 시에세이집 발간



이경재 학장

전주대학교 이경재 학장(경영대학)이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라는 제목의 시에세이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작가에 따르면 이 책에는 '시와 신김치', '행복하면 행복해요', '청개구리 학생들', '내가 새우구나', '할아버지' 등 총 51편의 시가 들어있다. 특히 시와 동시, 시조, 다카시 등 장르도 다양하며,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등이 수필 형식으로 구성됐다.

반나절 만에 이 책을 다 읽고 블로그에 글을 남겼다는 독자 엄미현 씨는 "가독성이 높고 책장을 넘기는 내내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며 "저자의 의도대로 시가 내 인생에 슬며시 들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서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저자는 "전 국민의 시인화" 즉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를 쓰고, 시와 함께 치유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시를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해 시에 흥미를 잃거나 시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이 책을 보면 시 쓰기가 만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 학부모 참여 공모 추진

전북자치도교육청, 만들기·환경개선 등... 8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부모가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생, 교사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분야는 △만들기(천연바누, 공예 한지 등) △역사 유적지 및 박물관 탐방 △교육(기후환경, 미래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환경개선(학교 담장 및 계단 수선, 학교 숲 가꾸기 등) △문화(시집 발간, 문학기행 등) 등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진행되는 활동들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계획서

를 작성, 오는 8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공모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jbe.go.kr/gongm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원·학생 참여 수준, 학교 참여 활동계획, 예산 집행계획,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 정도 등을 심사해 50여 개의 사업을 선정, 교당 15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화해 자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전북에듀페이 전용앱 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에듀페이 전용앱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 전용앱은 초 2~6학년, 중·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습 지원비는 바우처로, 전북에듀페이 카드에 충전한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과 잔액, 가맹점도 조회할 수 있다.

전북에듀페이앱은 구글 플레이스토

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전북에듀페이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가 전면 시행되는 올해는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효율적으로 전북에듀페이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교육연구원, 2023년 연구대회 입상자 사례발표 영상 제작

2024년 교육연구대회 지원... 첫 시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023 연구대회 우수 사례발표 영상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 사례발표 영상은 전북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보고서를 비롯해 전국대회 1등급의 성과를 낸 교사 12명이 참여해 총 20차시로 제작했다.

이는 2024년 교육연구대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2023 기초기본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제31회 교육방송연구대회 △2023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로 주제별 2~4차시 10분 내외로 구성됐다.

특히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 주제정하기, 연구대회 입상전략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와 학교에서 적용한 사례 등을 담았다.

2022~2023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전북대회 및 전국대회 1등급에 입상한 장운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적용했던 연구 주제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미흡하지만 2024년 교육연구대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익 원장은 "이번 연구대회 우수사례 영상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연구를 위한 가이드 영상이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교육연구원은 오는 5월까지 2024년 교원 연구대회 계획서를 신청받고 있다.

사전설명회의 지원과 안내사항을 담은 동영상 및 2023년 연구대회 우수사례 영상은 미래교육연구원 전북교육영상 누리집(<http://vod.jbedu.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